

## 건국대 2019학년도 인문사회계1 1번

☞ [개]와 [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개]

우리는 인습적인 형태와 색깔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때때로 별이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별표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림에서 하늘은 푸르려야 하고 풀은 초록색이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린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림에서 다른 색채를 보면 화를 낸다. 그러나 그들이 초록색 풀과 푸른 하늘에 관해서 지금까지 들어 왔던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면, 혹은 마치 우주 탐험 여행 중에 다른 행성에서 돌아와 지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본다면, 우리는 주위의 사물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다른 색채들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가들은 때때로 그러한 우주 탐험을 다녀온 것같이 느낀다.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의 삶은 살색이고 사과는 노랗거나 빨강다는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려고 애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성공한 미술가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때가 많다. 이러한 화가들은 우리들에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의 존재를 자연에서 찾으라고 가르쳐 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우리 자신의 창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계를 한번 힐끗 내다보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고전』

[내]

장자에 따르면, 도에서 덕이 생기고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겨나는데, 구체적 사물이 생겨나면 본성이 있게 된다. 만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9만 리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큰 새[大鵬]와 나무 사이를 겨우 날아다니는 매미[螻]는 타고난 본성이 전혀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자유롭게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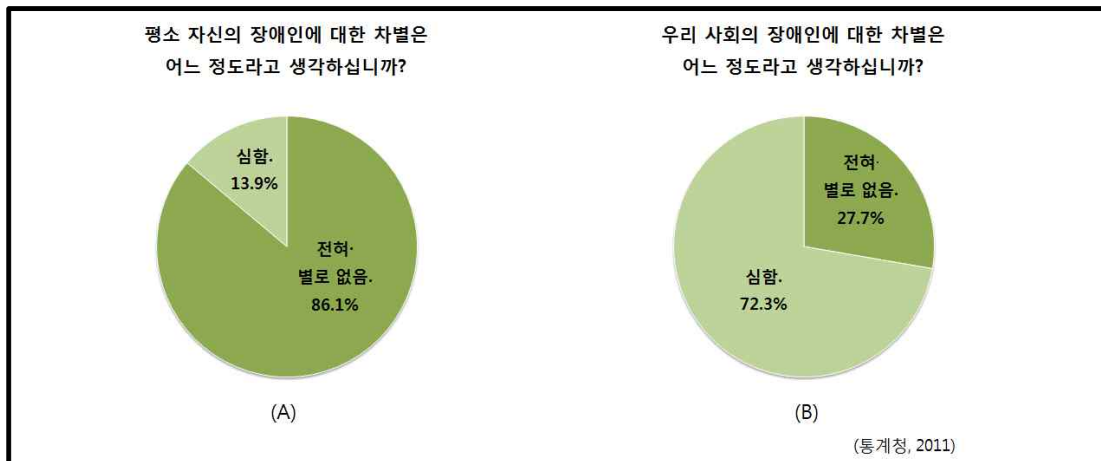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萬物齊同]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편협한 관점에서 사물의 아름다움과 추함, 귀함과 천함,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등을 분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 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내는 행위가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지는 것도 어떤 관습이나 규범 체계, 제도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 놓고 억지로 그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이라 일컬었다. 이들은 세상의 잡다한 일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 세계, 나와 남의 구분도 넘어선 경지에 있으므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도(道)와 하나가 된 상태이므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편견이나 의도된 마음이 없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대]

[도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 조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독해]**

- (가) 고정관념 탈피 - 열린 관점 → 사물의 아름다운 진실 발견
- (나) 인위적 집착에서 탈피 → 본성 발휘 → 자유와 행복
- (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가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고정관념 탈피 - 열린 관점	아름다운 진실 발견
	(나)	인위적 집착에서 탈피	본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
대상	(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불행 속에 갇힘

**[예시답안] 500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통합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세상의 진실을 발견하고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상술 (가)	가령, 제시문 (가)를 보면, 미에 대한 기존의 편견에서 탈피하려는 화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 (나)	이러한 인식은 제시문 (나)의 장애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인위적 질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적용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다)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상	(다)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적용	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설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한 아름다운 진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없고, 개인도 사회도 진실된 자유로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 [대학 제시문 분석]

[문제 1]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고전』에서 뽑은 지문으로 화가들의 체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가]에 의하면 하늘을 반드시 푸르게 또 풀을 초록색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역시 장자의 사유를 통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자는 만물이 제각기 자신의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만 아름다움과 추함, 귀함과 천함,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등의 분별이라는 인간의 편협한 관점 때문에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 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는” 파괴 행위가 자행되어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편협한 관점과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두 지문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A)는 자신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도표 (B)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도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적 타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봄으로써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기중심적 경향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을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학 문항해설]

[문제 1]은 [가]와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 [다]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가]는 우리는 인습적인 형태와 색깔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시각을 바꾸면 우리는 주변의 사물들이 엄청나게 다른 색채들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린 화가나 미술가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때가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화가나 미술가의 세계를 내다보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萬物齊同]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편협한 관점이 이러한 자연의 본성을 파괴한다고 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한 이유는 어떤 관습이나 규범 체계, 제도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 놓고 억지로 그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계, 나와 남의 구분도 넘어선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와 [나]는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내용이 아니라 인습적인 관념과 편견, 그리고 편협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를 분석해야 한다. [도표]에서 조사 대상자 대부분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의 괴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괴리는 사람들이 은연 중 장애인을 차별하면서도 자신은 장애인에 대

한 편견이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6.1%라면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도 이와 비슷하게 차별 없음 비중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72.3%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습적 태도 때문이다.

[가]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면, 즉 화가나 미술가들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장애인에 대해 아름답고 감동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고, [나]에 의하면, 만물의 가치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벗어나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입장을 갖는 것이 진정한 절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 [대학 채점기준]

[문제 1]은 [가]와 [나]에 나타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다]의 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가]와 [나]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인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의 표를 분석해야 한다. [문제 1]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의 핵심 내용 파악과 [다] 도표의 정확한 분석	① [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가]는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버리면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의 감동적인 모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② [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나]는 인간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만물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다] 도표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다]는 자신은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괴리를 보여준다.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적용한 [다] 도표의 정확한 분석	④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다] 도표 분석에 활용하였는가? [다]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존의 관념과 편견', '편협한 관점에서 사물을 분별'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대학 예시답안] 596자**

[다]는 사람들이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 전체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에 따르면 자신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9%에 지나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심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2.3%에 이른다. 자신도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자신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심한 괴리를 보이는 것은 [가]와 [나]를 통해 설명된다. [가]에 따르면 우리는 대개 기존의 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지 못한 채 인습적으로 세상을 본다.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현실적 인식이 72.3%인 데 비해 자신이 장애인을 전혀 혹은 별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86.1%라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현실과 달리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강박 관념, 혹은 나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각기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러한 분별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나]의 주장에 비춰볼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로운 인식에서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세대 인문계열 2017학년도 기출 2번

- ☞ 제시문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 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000자)

(가)

1636년 12월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는 가운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성 안에 넣는다.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웁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입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戰)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守)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和)가 아니라 항(降)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말했다.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和) 자를 먼저 꺼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이백 년 종사\*가 신



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상헌의 답답함이 저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길을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우 터인데,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 \* 종사: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 \* 창의: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 (나)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여길 수 없다. 그럴 경우 평화 조약은 모든 적대 관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이나 전쟁의 연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는 오히려 전쟁의 상태다. 즉 자연 상태에서 항상 적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적대 행위의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는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의 보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증이 이웃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웃들이 서로 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 공화제여야 한다. 이 체제의 조건은 첫째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근거를 둔 의존의 원리에 의해, 셋째로 평등의 원리에 의해 마련된다. 이 체제가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국민은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감수하는 데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나 독재자는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손쉽게 전쟁을 선포해 버린다.

자연 상태에서 여러 국가들은 폭력과 전쟁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상호 이익을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자유로운 교역과 상업주의 정신 덕분이다. 국가의 힘에 속하는 모든 수단 가운데 물질적인 부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부의 유지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 어디든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게 된다.

(다)

평화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모든 사람의 번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신념이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늘 평화롭게 살았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부자가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있겠는가? 어떠한 이득도 없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자신을 옹아맨 사슬 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또는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길이 곧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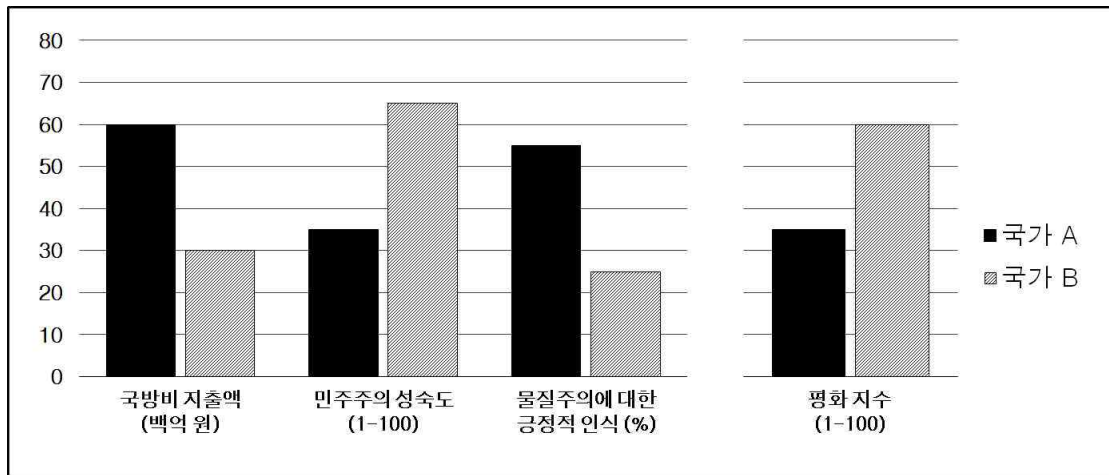
이러한 지배적인 신념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이에 따르면 풍요로움이라는 희망 사항이 빨리 실현될 수록 또 하나의 희망 사항인 평화도 곧이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서 풍요와 평화의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학과 기술이 있기에 굳이 금욕이나 희생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물질적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일까? 곧바로 더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힌다. '충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가? 경제 성장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학자는 '충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 게다가 "좋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풍족한 사회가 있을까? 그러한 사회가 있을 리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라고 해서 평화의 토대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질투심에 의해 달성된 번영은 결국 평화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도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까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욕망을 줄여야만 다툼이나 전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라)

아래 그림은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결과인 평화 지수를 보여 준다. 평화 지수는 국내외적인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한 국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한 지표다. 국가 A와 국가 B의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제시문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 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1,000자)**

**[독해]**

- (가) 상황 : 최명길과 김상헌의 논쟁 상황에서 김상헌은 무력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음  
대응 : 최명길은 이에 맞서 무력에 의한 희생을 줄이는 화친의 길을 주장하고 있음
- (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 → 전쟁 유보적 조약으로는 평화 보장 안 됨  
→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민주 공화제가 필요함 → 상호 이익을 위해 평화 가능성이 높아짐
- (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은 충돌을 일으킴 → 욕망을 절제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라) 국방비 지출 적고,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고, 물질주의에 대한 신중함이 높아서  
→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지수가 높음

**[논리평면] 사실추론 (국가 B 중심)**

	전제	결론
기준 (가)	전쟁에 대한 방어적 태도	무력에 의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음
대상 (라)	국방비 지출이 적음	평화지수가 높음
	전제	결론
기준 (나)	민주 공화제의 필요성 강조	자기 보호를 위해 평화 수호 증가
대상 (라)	민주주의 성숙도 높음	평화지수 높음
	전제	결론
기준 (다)	욕망의 절제를 강조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대상 (라)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낮음	평화지수 높음

**[예시답안] 922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핵심	제시문 (라)의 국가 B는 국가 A보다 평화로운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상술	제시문 (라)에 따르면, B국의 평화지수가 A국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A국에 비해 적은 국방비 지출, 높은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2 적용A	주장	먼저, B국의 평화지수가 높은 것은 국방비 지출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관점이 있다.
	기준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있어야 무력에 의한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는 무력적 대응보다는 화친의 전략이 국익, 곧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적용	따라서 A국에 비해 B국이 약 2배 적게 국방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곧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의 평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 적용B	주장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 B의 높은 평화지수는 A국에 비해 약 2배 높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된다.
	기준	제시문 (나)는 민주 공화제를 통한 민주적 정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였다.
	적용	따라서 B국의 높은 민주주의 성숙도는 곧 B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도 있게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곧 전쟁의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고 있다는 것이다.
4 적용C	주장	마지막으로 국가 B의 높은 평화지수는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	제시문 (다)는 욕망을 절제해야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한정된 자원과 만나 결국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용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B국이 A국에 비해 물질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 2배 높은 현상은 곧 자원에 대한 욕망이 절제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결국 이러한 B국의 자기조절이 곧 갈등 해소로 이어져 평화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수시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문학>, <철학>,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논리학>, <화법과 작문>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민주주의', '인간의 욕망 추구' 등을 '평화'라는 추상적인 차원과 '국제 분쟁과 해결'이라는 현실적 주제의 차원에서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했다.
-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평화'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문학, 정치 및 철학, 경제학)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과 독창적인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그래프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능력 및 이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대학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성]

이번 논술의 제시문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접해보았거나 다루어보았을 성격의 글들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와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게 했다. 이번 논술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는 '평화'는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요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바람직한 인간됨을 지향하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장과업이다. 수험생들이 다면적으로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제시문들은 <문학>, <철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등에서 다루는 '세계화와 평화', '국제 갈등과 국제 안보'의 교육목표에 부합한다. 각각의 제시문 역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했거나, 교과서 주제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가)는 『국어』 교과서(천재, 지학사)에 수록된 것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301쪽) 6장(평화와 윤리)과 『생활윤리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2017)에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설명하는 내용과 맞물려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135쪽) 3단원(생태중심주의의 윤리와 환경문제)에 소개된 내용을 관련 출처의 원문으로 제시한 것이며, 해당 내용은 『도덕』이나 『철학』 교과서들에서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평화와 관련된 변수별 단위 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명료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들에 나타난 의미와 관계를 제시문 분석과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평화 지수를 다양한 변인들의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액',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평화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국어>, <논리학>, <경제> 등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모든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에 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대학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국어 교과서(천재, 지학사)에 수록된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여 펴낸 허구적 창작물이다. 청나라의 항복 요구 문서를 놓고 김상헌과 최명길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대립한다. 싸우는 것만이 당면한 살 길이라 하면서 끝까지 항전하자는 주전론자(김상헌)와 일단 화친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론자(최명길)가 맞서는 장면이다.

제시문 (나)는 독일 철학자 칸트(I. Kant)의 『영구 평화론』에서 발췌, 편집한 내용을 출처 의도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 평화는 일시적인 전쟁의 중지가 아니라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력균형' 즉, 무력 위협을 동반한 균형은 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칸트는 영구 평화의 조건으로 민주적 공화제를 들고 있다. 민주 공화정 국가는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대의(代議)정치를 채택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유 무역을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진되기에 국제적 유대를 파괴할 전쟁에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제시문 (다)는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슈마허는 오늘날 지배적인 신념, 즉 보편적인 변명이 평화의 가장 굳건한 토대라는 점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 신념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넉넉해지면 더 이상 그들의 부유한 상태를 위협하는 분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놓여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함으로 공급하는 무한대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슈마허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는 한 분쟁을 종

식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쟁이나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슈마허의 결론이다.

제시문 (라)는 국가 A와 국가 B의 '국방비 지출액',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두 국가의 '평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변수화한 '국방비 지출액',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국가 A와 국가 B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다. 어떤 변수가 국가 A와 국가 B의 '평화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 [대학 문제 분석]

원인 변수인 '국방비 지출액', '민주주의 성숙도',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결과 변수인 '평화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논리적 설명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문 속의 핵심적인 개념을 수치화된 변수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래프에 나타난 데이터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문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핵심 개념의 변수화에 근거하여 변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 [대학 채점 기준]

- 상: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 드러난 논지와 제시문 (라)에 드러난 변수를 연결하여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
- 중: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 드러난 논지와 제시문 (라)에 드러난 변수를 연결하여 그 근거를 제시할 경우
- 하: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와 제시문 (라)에 드러난 변수들을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



# 논리 참고 자료 평면

## 건국대 인문사회계1 2016학년도 기출 1번

☞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 [가]

회전문의 축은 중심에 있다. 축을 중심으로 통상 네 짝의 문이 계속 돌게 되어 있다. 마치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사실은 네 짝의 문이 계속 안과 밖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실질적으로는 열려 있는 순간이 없이 계속 닫혀 있는 것이다. 또한 회전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회전문의 구조와 운동 메커니즘에 맞추어야 실수 없이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어린이, 장애인, 또는 민첩성이 없는 노인은 쉽게 그것에 맞출 수가 없다. 맞이하는 사람의 방식과 틀에 들어오는 사람이 맞추도록 하는 열림은 진정한 열림이 아니다. 그것은 회전문의 축의 구조처럼 맞이하는 자가 모든 것의 중심에 군림하려 하고 타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여닫이문은 말 그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닫아 놓을 수도 있다. 들어오는 사람이 원하면 반쯤 열고 중간에 서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닫이문의 축이 맨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축이 주변에 비껴 있음으로 해서 문의 기능은 원활하고 다양하지만, 막상 문설주에 붙어 있는 '돌쩌귀'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돌쩌귀가 제공하는 기축(機軸)성은 열림과 닫힘을 가능하게 하면서 표가 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문을 지지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축'의 기능을 가질 뿐이지 통제적 기능을 지닌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쩌귀는 열고 닫을 때마다 다 자신에게 힘이 실리는 것을 고스란히 감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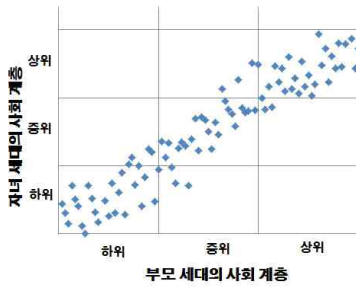
사회는 각 개인의 여닫이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닫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 엽을 행할 때가 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닫힘과 완전하고 영원한 열림은 존재할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열고 닫음이 있을 뿐이다.

- 김용석, 「열린 사회의 신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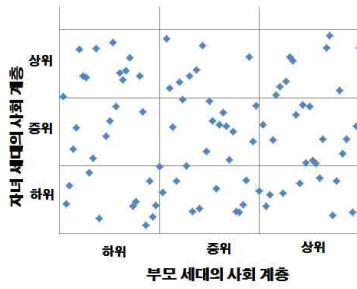
[대]

다음 도표는 A, B, C 세 사회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사회 계층의 관계를 각각 하위, 중위, 상위의 세 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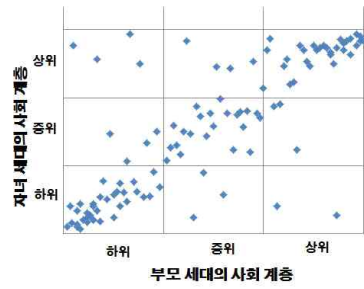
<도표 1> A 사회 부모와 자녀의 계층



<도표 2> B 사회 부모와 자녀의 계층



<도표 3> C 사회 부모와 자녀의 계층



※ 자료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독해]**

(가) 여단이문 → 문의 축이 중심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다. 사람의 의사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다.

열린 여단이문 → 열림, 닫힌 여단이문 → 닫힘

회전문 →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닫힘. 문의 기준에 사람이 맞춰야 한다.

(다) <도표 1> A 사회: 부모 세대의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사회 계층은 강한 양적 상관관계, 예외 없음

<도표 2> B 사회: 부모 세대의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사회 계층은 상관관계가 없다

<도표 3> C 사회: 부모 세대의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사회 계층은 강한 양적 상관관계, 예외 있음

**[논리평면] 사실추론**

	전제	결론
(가)	여단이문 (열림, 닫힘)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열림/닫힘이 결정됨 돌쩌귀는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기능함
(다)	A 사회 - 열린 여단이문	강한 양의 상관관계 - 안정된 신분제 사회
	B 사회 - 닫힌 여단이문	상관관계가 없음 - 완전히 개방된 사회

	전제	결론
(가)	회전문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사회
(다)	C 사회 - 회전문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 닫힌 사회

**[예시답안] 581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제시문 (가)의 여단이문은 열림과 닫힘의 조정을 통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이다.
	상술	여단이문의 축은 문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문이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한다.
2 적용	주장	이 관점에 따르면 (다)의 <도표 1>의 A 사회와 <도표 2>의 B 사회는 각각 열린 여단이문과 닫힌 여단이문에 해당된다.
	대상A	도표들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계층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A 사회는 예외조차 없는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적용A	이는 안정된 신분제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B	반면, B 사회는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계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용B	개방성 높은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준	핵심	반면, (가)에 나타난 회전문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닫혀 있다.
	상술	문의 기축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적용	주장	따라서 (다)의 <도표 3>에 나타난 C 사회는 회전문에 해당된다.
	대상	C 사회는 양 쪽 끝에 예외가 존재하여
	적용	마치 계층이동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	이를 제외하면 강한 양적 상관을 보여
	적용	결국 굳건히 닫힌 사회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제시문 [가]와 [나]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리]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취하였으며, [다]의 도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충실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논술고사 1번 문항(문제 1)은 다양한 층위의 의미요소를 지니는 ‘열린’과 ‘닫힌’의 개념을 적용해서 사회적 삶의 양상에 얽힌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다]에 제시된 세 도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 계층 간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가]와 [다]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라는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는바, 그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세 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문제에서는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 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사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와 건전한 세계관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건국대학교가 필요로 하고 또 미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대학 문제해설]

이 문항의 기본 과제는 [다]의 도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 [다]의 세 도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 계층 간 관계를 점도표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이들 도표의 각 점 또는 각 관측치는 부모와 그 자녀가 속한 사회 계층을 짝지어 표시한 것으로 점들이 좌하단의 꼭짓점과 우상단의 꼭짓점을 연결한 대각선상에 위치할수록 전자와 후자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며, 대각선에서 벗어날수록 연관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대각선에 의해 나누어진 두 구역 중 좌상단(∩부분)은 부모에 비해 자녀 계층이 더 높은 상향 이동을 보여준다면, 우하단의 구역(∟부분)은 하향 이동을 나타낸다. 관측치가 도표의 특정 영역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와 같이 두 계층 간 관계가 ‘전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에 상정된 세 사회 중 A사회의 경우 부모 세대의 계층과 자녀 세대의 계층의 유사성이 높으며 경향이 일관적이다. 사회 계층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낸다면, A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다음 세대에서 재생산되거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계층 간의 이동이 좁은 범위 안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A사회는 기본적으로 '닫힌 사회'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사회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계층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도 좋을 만한 수준이다. 이 경우 자녀의 계층은 부모의 지위나 부가 아닌 자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사회는 세대 간 계층의 이동성이 가장 높은 '열린 사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C사회의 사례다. C사회는 B사회와 같이 대각선을 멀리 벗어난 영역에 관측치들이 있다는 점에서 '열린 사회'의 특징을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C사회는 B사회와 달리 계층의 상향 이동을 보여주는 도표의 좌상단(▽부분)과 하향 이동을 보여주는 우하단 영역(△부분)에서 훨씬 적은 사례만을 볼 수 있어 '열림'이 제한적이다. 그 열림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동시에 <도표 3>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하위-하위'와 '상위-상위'로 연결된 영역에서 대각선 부근에 매우 조밀하게 관측치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A사회 이상으로 계층이 재생산되는 '닫힌 사회'의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C사회는 [가]의 회전문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열핏 보기에는 열려 있으나 실제로는 '유리벽'에 의해 닫힌 사회의 면모다. 사회 최상층이 회전문의 축처럼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계층 이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사회라는 추리도 가능하다. A사회와 B사회를 [가]에서 말하는 '문'의 비유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A사회를 '닫힌 여닫이문', B사회를 '열린 여닫이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단, 논리를 잘 세울 경우 A사회를 회전문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응시자가 A사회는 [가]의 '닫힘'에 해당하고 B와 C사회는 '열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단순하고 부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C사회가 A사회와 B사회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하는 식의 설명도 핵심을 놓친 분석이 된다. 만약 C사회가 A사회나 B사회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형태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분석이라 할 수 있다. C사회는 계층 이동이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최상층과 최하층의 세습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닫힌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핵심을 짚어낸 분석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해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강좌	집중훈련	진도	사실추론2	
건국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는 회전문이 언뜻 보면 열린 것처럼 보이나 닫혀있다고 말한다. 이는 축이 중심에 균림하여 정해진 축의 틀에 사람들이 맞추게 하는 회전문의 특성 때문이다.</p> <p>따라서 C 사회는 회전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C 사회는 대체로 계층이동이 없으며 소수만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계층이동이 존재해 열린 것처럼 보이나 대체로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동일해 닫혀있는 회전문의 특징과 유사하다.</p> <p>㉢반면 여담이문은 열고 답음이 자유롭다. 여담이문의 축은 가장자리에 있기에 회전문의 축 같은 틀은 존재하지 않아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을 수 있다.</p> <p>이를 통해 A 사회는 완전히 닫힌 여담이문임을 알 수 있다. ㉣A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A 사회는 천부적인 특성 유지를 중시하는 폐쇄된 사회라는 것이다.</p> <p>이와는 대조적으로 B 사회는 완전히 열린 여담이문에 해당한다. B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계층과 자녀의 계층 간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계층을 초월한 포용력을 보이는 열린 사회에 해당한다.(571자)</p>	논제	☆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독해	① 출처(가)를 밝혀줍니다. 아니면 맨 앞 문단에서 회전문과 함께 비교해서 서술해줘도 좋습니다.			
	구성	☆ 전반적인 글의 구성이 좋습니다.			
	표현	<p>② 이미 글의 구성이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도표의 해석에서 나온 추론임을 알 수 있게, 도표의 해석을 곁들여주세요. 경향성을 드러내주는 표현 (ex-양적 상관관계, 음적 상관관계, 예외적 수치) 정도라도 충분합니다.</p> <p>③④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을 사용해준 다음에 해석을 보여주세요.</p>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5	17	7	84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① 제시문 (가)는 회전문을 열린 듯 닫혀 있다고 설명한다. 회전문은 자신의 작동 메커니즘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신체적 약자들은 배척하기 때문이다.</p> <p>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C 사회는 회전문 모델에 해당한다. C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계층과 자식의 사회적 계층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C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로, 사회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폐쇄성과 개방성이 혼재된 사회로 파악된다.</p> <p>한편 제시문 (가)는 여닫이문을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닫힌 여닫이문은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는 폐쇄성을 반영하며, 열린 여닫이문은 타자를 배려하는 개방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p> <p>② 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A 사회는 닫힌 여닫이문 모델과 일맥상통한다. A 사회는 부모와 자식의 계층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A 사회가 공동체적 전통을 고수하는 폐쇄적 사회임을 시사한다. 반면 B 사회는 열린 여닫이문 모델에 해당된다. B 사회는 부모와 자식의 계층 간 상관관계가 전무하다. 이로부터 B 사회는 평등을 강조하는 개방형 사회임을 알 수 있다.</p>	논제	☆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독해	② 제시문과 그래프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그것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장은 (다)와 그래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다음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듯하네요.			
	구성	① 제시문(다)의 C사회는 여닫이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전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의 흐름상 뒷부분에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물론 이 글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C가 폐쇄성과 개방성을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닫이문 모델을 설명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표현	☆ 표현 문제 없습니다. 문장이 간결하고 정확해서 아주 좋습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7	27	15	9	88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의 회전문은 닫힘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회전문은 열핏 보기에는 열려 있으나 문의 기축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통제적인 특성을 지닌다.</p> <p>이 관점에 따르면 (다)의 &lt;도표 3&gt;에 나타난 C 사회는 회전문에 해당한다. ❶ C 사회는 대부분 세대 간 계층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열림은 닫힘에 비해 훨씬 적은 사례만으로 볼 수 있어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C 사회는 실질적으로 부모 계층 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닫힘’의 사회에 해당한다.</p> <p>반면 (가)의 여담이문은 열림과 닫힘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돌쩌귀가 맨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통제적 기능은 없으면서도 여담함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p> <p>이 관점에 따르면 (다)의 A 사회와 B 사회는 여담이문에 해당한다. A 사회는 ❷ 세대 간 계층의 유사성이 높아 계층의 대물림 경향이 가장 높다. 이러한 A 사회는 ‘닫힘’의 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❸ 반면 B 사회는 계층 간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열린 사회’이다. 이 경우 자녀의 계층의 요인은 부모가 아닌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76자)</p>	논 제	☆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독 해	❶ 이미 글의 구성이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도표의 해석에서 나온 추론임을 알 수 있게, 도표의 해석을 곁들여주세요. 경향성을 드러내주는 표현 (ex-양적 상관관계, 음적 상관관계, 예외적 수치)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구 성	☆ 전반적인 글의 구성이 좋습니다.			
	표 현	❷도 마찬가지로, 경향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을 사용해준 다음에 해석을 보여주세요. 왜 계층 간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지 도표에서 근거를 찾아 표현해줘야 합니다.			
		☆ 문장력이 좋습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5	17	8	85

# 논리평면 ‘작품’ 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 (가)는 열림과 닫힘이란 관점으로 여단이문과 회전문에 대해 해석한다. 우선 여단이문은 열림과 닫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축이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열린 문은 완전히 개방적인 사회를 의미하며, 닫힌 문은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p> <p>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다)의 &lt;도표 1&gt;의 A 사회와 &lt;도표 2&gt;의 B 사회는 각각 열린 여단이문과 닫힌 여단이문이라 할 수 있다.(다)의 도표들은 각각 부모와 자녀 사회계층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강한 A 사회는 강하게 닫혀있는 신분제 사회를 의미하며, 상관관계가 없는 B 사회는 완전히 열린 사회로, 각 계급이 타자를 배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p> <p>이와 달리 (가)의 회전문은 열린 듯 보이지만 사실 굳게 닫혀있는 문이다. 축은 중심에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 기준에 ❶적합하는 사람만 오갈 수 있는, 폐쇄적이며 균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p> <p>그런 의미에서 (다)의 &lt;도표 3&gt;의 C 사회는 회전문이라 할 수 있다. 도표를 살펴보면 C 사회는 몇몇 예외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회계층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얼핏 보기엔 열린 듯 보이나, 사실 굳게 닫힌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는 그 사회에 균립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회 약자 배제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p>	논 제	☆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독 해	☆ 제시문 (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도표를 분석하고 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썼네요.	구 성	☆ 구성 문제 없습니다.
	표 현	❶ ‘적합한’이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40	27	17	9	93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회전문과 여담이문을 제시한다. 먼저 여담이문은 축이 가장자리에 있어 열고 닫음이 자유롭다. 그래서 통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고, ①열고 닫음에 있어서 자신의 온전한 힘이 들어간다.</p> <p>②이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lt;도표 1&gt;과 &lt;도표 2&gt;가 각각 열린 여담이문과 닫힌 여담이문에 해당한다. 도표 모두 부모 세대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③ A 사회는 안정된 신분제 사회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B 사회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p> <p>반면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회전문은 축이 중심에 있어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 계속 닫혀 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축의 구조에 맞추도록 틀에 잡혀있다.</p> <p>이 관점에 따라 제시문 [다]의 &lt;도표 3&gt;은 회전문에 해당한다. 이 도표도 모두 부모 세대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C 사회 양쪽 끝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로 닫힌 사회라고 볼 수 있다.</p>	<p><b>논제</b></p> <p>☆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과 근거를 잘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p><b>독해</b></p> <p>③ ‘A사회가 안정된 신분제 사회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어떤 여담이문과 관련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채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근거를 반드시 잘 설명해주어야 해요.</p>				
	<p><b>구성</b></p> <p>● 기준설명-현상-근거-의미화의 연결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제시문이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p>				
	<p><b>표현</b></p> <p>① ‘열고 닫을 때 자신의 온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네요.</p> <p>② 주술호응 수정. ‘이 관점에 따르면~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p>				
<p><b>평가</b></p>	<p><b>논제 [40]</b> 37</p>	<p><b>독해 [30]</b> 24</p>	<p><b>구성 [20]</b> 14</p>	<p><b>표현 [10]</b> 7</p>	<p><b>총합 [100]</b> 82</p>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가)에서는 열림과 닫힘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회전문과 여담이문을 제시한다. 여담이문은 자유롭게 열거나 닫을 수 있다. ①축이 주변에서 회생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 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회전문은 제한적으로 열린다. ②축이 중심에서 균립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는다.</p> <p>이에 따라 A사회는 여담이문에서 닫힌 사회로 볼 수 있다. A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계층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계층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③(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B사회는 열린 사회이다. 계층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선천적으로 부여된 계층과 상관없이 계층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C사회는 회전문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리는 사회이다. 부모와 자녀 계층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겉보기에는 열린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층이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37자)</p>	논제	☆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독해	① “‘중심’에 있지 않”는다는 (가)의 내용을 적절히 비유했지만, 논술에서는 너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②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원제시문의 표현을 더 객관적으로, 학생의 언어로 표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	☆ 전반적인 글의 구성이 좋습니다.			
	표현	③ 무엇이? 사회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나요? (문장의 호응을 위해, 완결된 문장을 위해 필요한 성분은?) ex) => 이는 계층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닫힌(폐쇄적) 구조는 기존’ 사회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5	17	7	84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서는 열림, 닫힘의 관점을 회전문과 여닫이문으로 비유하여 나타낸다. 우선 여닫이문은 열림과 닫힘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사람의 출입에 통제가 없고, 축이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두 상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문이다.</p> <p>제시문 (다)에서 &lt;도표 1&gt;의 A사회와 &lt;도표 2&gt;의 B사회는 각각 닫힌 여닫이문과 열린 여닫이문에 해당한다. 우선 A사회는 자녀와 부모의 세대 계층이 일치한다. 이는 안정적인 신분제 상태의 사회를 의미하고, 닫힌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lt;도표 2&gt;의 B사회는 계층 사이의 아무런 상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❶수용적인 사회를 의미한다.</p> <p>이에 반해 회전문은 열린듯 닫혀있는 문이다. 즉, 축이 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폐쇄적인 문이라는 것이다.</p> <p>제시문 (다)의 &lt;도표 3&gt;의 C사회는 몇몇의 예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❷실상은 강압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어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는 폐쇄적 사회를 의미한다.</p>	논제	☆ 논제 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독해	<p>❶ 기준 문단에서 ‘수용하다’는 게 열림과 닫힘을 모두 수용한다는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지금의 ‘수용적인 사회’ 부분에서도 열림과 닫힘에 대한 수용성(?)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 “열린 사회적 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구조를 가진 사회를 의미한다” 정도로 해석을 구체화하도록 하자.</p> <p>❷ 이 실상에 대한 대상의 소전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어. 실상의 내용이라면,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는 정도면 되겠지?</p>			
	구성	☆ 독해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사실 구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상과 해석 부분에 대한 약간의 교정만 있으면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현	☆ 표현력은 아주 좋습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4	14	8	81

# 논리평면 ‘작품’ 탐사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탐 사		
<p>제시문 (가)에서 여닫이문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문이다. 축이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통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 열림과 닫힘이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열림은 다른 것을 수용하기 위함이고 닫힘은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p> <p>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A사회는 닫힌 여닫이문에 해당한다. A사회는 부모 세대의 사회 계층과 자녀 세대의 계층이 완벽한 비례관계를 띠고 있다. 이는 자녀가 예외 없이 부모와 같은 계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닫힌 사회인 것이다.</p> <p>또한 제시문 (다)의 B사회는 열린 여닫이문에 해당한다. B사회에서는 부모의 계층과 상관없이 자녀의 계층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자녀를 다양한 계층으로 인정하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린 사회인 것이다.</p> <p>반면 제시문 (가)에서 회전문은 열린 듯 닫혀있는 문이다. ❶축이 중심에 있어 통제적인 역할을 하지만 소수자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예외가 있다.</p> <p>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C사회는 회전문에 해당한다. C사회는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거의 비례하지만 이 관계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몇몇 있다. 이는 소수자들 때문에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은 완벽한 비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❷열린 듯 보이는 닫힌 사회인 것이다.</p>	<p><b>논제</b></p> <p>☆ 논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는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p>				
	<p><b>독해</b></p> <p>❶ 축이 통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수자가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지?                  ❷ 이 내용 말고도, 해석에서 해줄 말이 더 있었을 거야. 소수자가 소외받는 구조라든지, 중심 구조가 사회를 통제한다든지 말아야.                  우선 이론의 상술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 해석 부분도 조금 더 풍성하게 구체화하도록 하자.</p>				
	<p><b>구성</b></p> <p>☆ 전반적으로는 구조적 안정성이 좋은 글입니다. 해석 부분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p>				
	<p><b>표현</b></p> <p>☆ 표현력 좋습니다.</p>				
<b>평가</b>	<b>논제 [40]</b>	<b>독해 [30]</b>	<b>구성 [20]</b>	<b>표현 [10]</b>	<b>총합 [100]</b>
	36	23	15	8	82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lt;가&gt;는 회전문과 여담이문을 통해 열림과 닫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여담이문은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들찌귀는 여담이문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들이 문을 여닫는 방식에 맞추어 작동한다.</p> <p>① 제시문 &lt;다&gt;는 세 사회 내의 부모와 자녀 간 계층 이동을 분석한 도표이다. 이에 따르면, &lt;도표 1&gt;의 A 사회는 닫힌 여담이문, &lt;도표 2&gt;의 B 사회는 열린 여담이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 사회는 예외없이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안정된 신분제 사회임을, 이와 달리 어떠한 상관관계도 드러내지 않는 B 사회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임을 각각 유추할 수 있다.</p> <p>반면,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전문은 사실상 닫혀 있다. 중심에 위치한 축은 회전문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며, 그들로 하여금 문의 회전문 방식에 맞추어서 통과하게 한다.</p> <p>&lt;도표 3의&gt; C 사회는 회전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이동 사례는 ② A 사회에 배제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강한 양적 관계를 보임으로, ③ 결국 폐쇄적인 신분 사회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p>	논제	☆ 전반적으로 정성이 느껴지는 좋은 글입니다.			
	독해	④ 이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 쌤이 수업에서도 강조했듯이 ‘해석’의 클래스가 글의 클래스가 되는 거야. 이론의 상술 부분에서 활용할만한 부분이 보이지? 그걸 잘 연결시켜 보자구.			
	구성	① 이 문단의 핵심이 이 문장인가?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적용의 결론’, 즉 3단 논법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야.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소전제’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인 거니까, 핵심으로 올 순 없겠지?			
	표현	② 굳이 A 사회를 가져와서 설명하진 않아도 돼요. 물론, A 사회의 속성에 빗대서 설명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C 사회에만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아.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5	14	8	83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회전문은 열린 듯 닫힌 문이다. 지속적으로 문은 회전하며 언뜻 보기에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축을 중심으로, 네 개의 문짝이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이다.</p> <p>이에 따라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도표 3의 사회는 회전문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양쪽 끝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한 양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견상 계층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외 경우에 해당할 뿐 폐쇄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p> <p>이와 달리 (가)에 등장하는 여닫이문은 열고 닫음이 선택적이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열린 문 또는 닫힌 문으로 존재 가능한데, 이는 문 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돌쩌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을 여닫게 하기 때문이다.</p> <p>이에 따라 ①(다)에 등장하는 도표 1과 2의 사회는 각각 여닫이문 중 열린 문, 닫힌 문과 유사하다. 먼저 B 사회는 ②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아 열린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타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반면 A 사회는 예외 없는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사회는 폐쇄적이지만 사회가 안정되며 개인의 정체성 유지가 용이한 신분제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p>	논제	☆ 훌륭한 사실추론의 글입니다!			
	독해	☆ 이 정도면 매우 풍성한 독해야.			
	구성	☆ 빠뜨린 요소는 없어요. 다만 요소들의 연결만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자.			
	표현	<p>① B 사회는 어떤 도표에 있는 거야?</p> <p>② 어떤 변수(축) 간의 상관관계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p> <p>상관관계가 안 나타나는 것과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왜, 로 연결했을까? 화살표(전제→결론) 관계 아 니야?</p> <p>“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낫겠지? ‘사실’과 ‘해석’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p>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7	26	17	7	87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①제시문 (가)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회전문과 여닫이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p> <p>먼저 회전문은 축을 중심으로 네 짝의 문이 회전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계속 열려있는 듯 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안과 밖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p> <p>이것을 통해 (다)의 도표 3에서 나온 C사회는 이러한 회전문 구조의 특성을 가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②(다)의 도표들은 부모와 자식의 사회계층이동에 관한 도표이다. 이에 따르면 c사회는 간간이 사회 계층의 이동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③열린듯하나 닫혀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p> <p>이에 반해 (가)의 여닫이 문은 축이 중심에서 비껴있는 구조로 원하는 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다.</p> <p>이에 따르면 (다)에의 도표1의 A사회는 굳게 닫힌 여닫이문의 해당하며, 도표2의 B사회는 완전히 열린 여닫이문에 해당된다. A사회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강한 양적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신분제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B사회는 어떤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으므로 계층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를 의미한다.</p>	논제	☆ 논제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독해	☆ 이론이 풍성하지 못해서, 독해 적용하는 ‘해석’ 부분도 조금 아쉬웠어요.			
	구성	<p>① 굳이 여기서 문단을 쪼개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제시문에서 두 개의 이론이 나오니까, 그걸 알려주려는 첫 번째 문장도 나름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문단도 이론으로서 잘 정리했어요. 하지만 굳이 이 두 개를 쪼개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p> <p>② 애는 꼭 설명해주지 않아도 돼요. 뒤에 대한 도표인지는 너무 개괄적이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아예 상관관계와 관련된 핵심을 바로 설명해주는 게 제일 좋아.</p> <p>③ 이게 해석 부분이지? 좋아. 다만, 조금 더 풍성하면 좋겠어요. 이론을 조금 더 풍성하게 써준 다음, 이 해석 부분에 그 풍성한 해석을 잘 연결시켜서 보충해 보자!</p> <p>☆ 마지막 문단 잘 썼다.</p>			
	표현	☆ 표현은 칼 같이 하는 편!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4	14	9	83

#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6 학년도 기출 인문 1 번 문제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다]의 세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401~6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는 회전문과 여담이문의 '열림'과 '닫힘'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제시한다. 우선, ❶ 회전문은 열린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닫혀있음을 뜻한다. 회전문의 중심축이 열림과 닫힘을 통제하여, 실질적으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p> <p>이에 따라서, 제시문 [다]의 도표 중 회전문에 해당하는 사회는 &lt;도표3&gt;이라 볼 수 있다. &lt;도표3&gt;에서 계층 간의 이동을 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계층이 일치한다. 이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임을 나타내고, 열린 듯 닫혀있는 회전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p> <p>제시문 [가]의 회전문과 달리, 여담이문은 열림과 닫힘이 모두 자유롭다. 축이 가장자리에 있어서 통제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인의 의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또한, 여담이문은 필요에 따라 열림을 유지하여 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닫힘을 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p> <p>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보면, &lt;도표1&gt;의 사회는 닫힌 여담이문으로, &lt;도표2&gt;의 사회는 열린 여담이문에 해당한다. ❷ &lt;도표1&gt;은 계층 간의 이동이 없는 신분제 사회임을 의미하는 반면에, ❸ &lt;도표2&gt;는 계층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나타낸다. 이는 상황에 따라 열림과 닫힘을 유지하는 여담이문의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p>	논제	☆ 사실추론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쓰여진 글로 보임! 적용 부분에서 '사실' 부분이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완결성이 부족해지긴 했지만... :)			
	독해	☆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대상을 해석해 줄 때는 항상 '기준의 상술'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			
	구성	❷ <도표1>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지? 적용 문단의 구성 요소는 [주장-사실-해석] 이지? 사실이 빠진 상태에서 해석이 나오면,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글이 되는 거야~			
	표현	❶ 회전문은 ~~~한 문이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낫겠지?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4	25	13	8	80